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오늘은 선교주일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의 깃발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회 총회 및 선교헌신예배 주일예배시 선교회비 작성 등

오늘은 교회에서 선교주일로 지킨다. 교회는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하고 온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이해와 사명을 새롭게 하고 선교적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지켜왔다.

선교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선교사 및 선교전시회, 선교회 총회, 선교헌신예배 등을 진행한다. 오늘 I, II, III, IV부 예배시간에는 선교회비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오후 3시 본당에서는 95년도 결산 및 96년도 계획, 파송 선교사들에 대한 근황 및 보고, 선교연구원 수료식 등이 진행되는 '96 선교회 총회'가 열린다.

또한 저녁 찬양예배는 선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마련한다. 선교회 헌신예배는 선교위원회 지도 장로목사의 사회, 설교에 이종대목사가 '선교와 재림신앙' (로마 15:20-21), 그리고 선교회 회원들의 찬양순서도 준

비되어 있다.

선교는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 중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우리가 선교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요 유언의 말씀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의 완성을 위해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40일동안 하신 말씀의 요약은 '선교'였다.

또한 성경이 선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하며, 선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마 24:14) 우리는 선교해야 한다. 오늘 선교주일을 지키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이해와 사명을 확인하고 헌신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천국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기까지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야 할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 1971년 파송된 우리교회 제1호 선교사인 서만수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현지인 교회 성도들의 모습. 활색인이나 흑백색인이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지체이다.

제1차 세례식

2월 1일(목) 예비문답

2월 2일(금) 세례식

'96년도에는 세례식 거행을 연 4회에 6회로 변경 실시한다. 연 4회로 실시할 경우 중·고등부 학생들의 참석이 학교 출석 관계로 어려웠는데 방학 중인 2월과 8월에 2회 더 세례식을 실시함으로써 이런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제1차 세례식은 2월 1일(목)에 예비문답을 하고 2월 2일(금)에 거행된다. 제1차 세례식에 참여할 성도들은 오늘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성찬식은 그대로 연 4회(3, 6, 9, 11월)로 거행된다.

당회장 청빙을 위한

장로기도회

1월 30일(화), 충현기도원

매월 첫째, 둘째주일 오후 4시에 국제회의실에서

당회에서는 공식 중에 있는 당회장 청빙을 앞에 놓고 지난 1월 당회에서 당회장 청빙 기본계획서를 확정지었다. 한편 당회에서는 구체적인 당회장 청빙의 대사를 추진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는 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

오는 1월 30일(화) 충현기도원에서 진행되는 '당회장 청빙을 위한 장로기도회'는 오후 7시 교회에 집합하여 기도원으로 출발, 기도원에서 오후 9시 40분까지 사회 우기전 장로, 기도 감재명 장로, 기도회는 박승준 장로가 진행한다.

'당회장 청빙을 위한 장로기도회'는 앞으로 계속하여 매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오후 4시에 국제회의실에서 있을 것이다.

◆ 당회장 청빙 기본계획서 ◆

1. 당회장 자격기준(외부에 제시할 기준)
 - ① 정규 4년제 대학 졸업 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자
 - ②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에서 안수 받은 목사
 - ③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학과 목회신앙을 소유한 목사
 - ④ 모범적 목회 경험자로서 연령은 50대 전후
 - ⑤ 청빙 대상자 교회 내부 심사규정(2.

항 참조)에 가장 합당한 분

2. 청빙 대상자 교회 내부 심사규정(청빙위원 및 당회원이 실시)

- ① 당회장 자격기준(외부에 제시할 기준) 합당 여부
- ② 목회 경험(담임목회 5년 이상) 및 현 시무교회에 대한 평가
- ③ 설교청취(테이프, 해교회 예배참석, 초청설교) 및 저서, 논문, 기고문 등 조사
- ④ 인격, 성격, 경건성 및 전 가족의 건강 확인
- ⑤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사모, 자녀, 부모, 형제 등) 등 조사
- ⑥ 이민 목회자의 경우 시민권 혹은 영주권 포기 및 가족 이주 확약
- ⑦ 주인의식과 사명감 확인
- ⑧ 국제감각 및 외국어 실력 유무
- ⑨ 면담

3. 청빙대상자 추천방법

- ① 교회 내외에서 청빙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는 청빙위원회에 제안하여야 한다.
- ② 청빙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는 당

회에 상정하지 못한다.

4. 청빙 절차

- 1) 청빙위원회
- ① 청빙위원회에서 청빙대상자 몇분을 선정하여 당회에 상정한다.
- 2) 당회
- ① 당회에서는 청빙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2항의 청빙대상자 교회 내부 심사규정에 따라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토론을 하여 심사한다.
- ② 당회 심사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시는 시일을 갖고 준비하여 심사한다.
- ③ 당회의 심사에서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목사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때는 재추천을 받아서 심사한다(추천은 마감일이 없다).
- ④ 당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 분을 선정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한다(유효 투표수의 2/3 득표자).
- 3) 공동의회
- ① 공동의회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가부를 결정한다(2/3 득표 여부).
- ② 공동의회에서 부결되면 청빙절차 과정을 다시 한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악한 자를 처치하소서

(시 10:1-18)

본 시편의 저작 환경은 분명치 않으나 아마 사무엘상 21-22장의 내용이 있는 다음에 지은 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울 왕이 죄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다윗은 할 수 없이 밤도망을 쳐서 늪 지방의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찾아 갑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과 골리앗 장군이 찢던 칼을 얻어가지고 다시 도망을 가는데 그 사실을 도역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 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반란을 음모했다는 도역의 거짓 보고를 받은 사울 왕은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잡아죽이고 그 가족들도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그때에 지은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다윗의 부르짖음이 어떠합니까(10:1-11, 13-14)

(1) 악한 사람을 빨리 처치해주옵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0:1)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이 여러 곳에서 까닭없는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시고 계시니까? 이것 정말 가슴이 타서 죽겠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탄식의 호소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죄를 살펴보면
① 교만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배운 죄에 빠지게” (10:2) 해달라고 했습니다.

② 욕심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다” (10:3)라고 했습니다. 꿈에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사장들이 다윗하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반란을 꾸민 것처럼 만들어 죄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인 도역과 같은 사람은 자기 한 사람 출세하기 위해서는 체면도, 양심도 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③ 무신론자들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0:4)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더니 다음에는 하나님까지 업신여깁니다. 의인을 죽인 다음에 당장 벌이 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마저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죄를 범합니다.

④ 무자비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꾀술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백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10:7-8)라고 했습니다.

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10:11, 13)라고 했습니다. 저 악한 무리들이 하는 말이 자기의 권세로 아무리 악을 행해도 아무도 모르고 자기의 행하는 일에 적소할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의 권세를 자자손손이 누릴 것이니 마음놓고 의인이고 무엇이고 마음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2)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나이다” (10:14)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되었건만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때에 가련한 죽음을 죽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외롭고 불쌍하고 한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육신 복받는 것만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공산주의 안에서나 회교권 안에서 믿을 지키는 사람들은 육신은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을 택하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고아와 같습니다. 고아와 같다는 말은 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칼을 뽑아 원수 갚을 마음은 없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농부가 포도를 따기 위해서 포도넝쿨에다가 거름을 주었는데 썩 나온 쥘레넝쿨이 포도가 먹어야 될 영양을 몽땅 도둑해 먹고 쪽쪽 뻗어서 포도넝쿨을 척 덮었습니다. 포도넝쿨이 생각하니 분하고 가슴이 터져와서 “야 이 자식아, 주인이 나 먹으실 것인데 너 왜 내 것 빼앗아 먹니?” 하고 포도넝쿨이 쥘레넝쿨에게 주먹질을 하면 포도넝쿨이 이기겠습니까? 쥘레넝쿨이 이기겠습니까? 분통은 터져도 농부가 와서 낫으로 도끼로 끊어버릴 때까지 가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신자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가 꾀박할 때에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분해도 원수 갚으면 상대방 앞에 내가 영육이 아울러 손해를 당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합니까(10:12, 15, 18)

(1) 일어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10:12)라고 했습니다. 이웃집 강패에게 매를 맞는 자식이 “아버지” 찾았는데 아버지가 “응” 대답만 하시고 가만히 구경만 하시면 때맞는 자식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원참. 아버지, 그러기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억울함을 당할 때 세상 마칠 때까지 외롭지만 겸손히 인내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기다립시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천지를 휘두르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농부가 가시나무 뿌리채 뽑고 쥘레넝쿨 뿌리채 뽑아버려 주는 날이 옵니다.



요?”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손을 드시옵소서’ 강패 자식이 나를 때리는데 아버지 찾았더니 아버지가 구경만 하시더니 슬금슬금 일어나서 신을 신고 “으흠” 하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 올려고 하는 것만 보아도 강패는 도망갈 것이 아닙니까?

(2) 심판하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10:15-18)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셔서 악한 자의 악이 없기까지 찾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의인을 괴롭히려 고 한대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원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병거를 타고 업신여기는 고향을 지르며 따라옵니다. 애굽 군대와 싸울 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 생각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모세야 네 손을 들어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손을 드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의 손을 드심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손을 드시자 심판이 나타났으니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못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세밀히 보시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듣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들으십니다. 악한 사람이 의인을 괴롭히는 일을 다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한 심판자이시니 인간적으로 백이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울어도 위로해줄 자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3. 성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0:17)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기도한 다음에는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내가 괜히 덤볐지, 시간만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다 해주실 것을 괜히 보겠다’ 하면서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실력자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백 년 왕노릇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 년, 만 년 영원히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분봉왕입니다. 지구덩어리 다 다스리는 왕이 없고 한 쪽 모퉁이만 다스립니다. 이것도 4년 혹은 7년, 8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 하나님은 권세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시어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성도의 편이신데 왜 성도를 죽는 자리에 내버려 영원히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사람들 앞에 천대받은 다음에 천대 받은 것 이자를 붙여서 영광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면 기도응답은 틀림이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때때로 억울하게 고생 당하는 때도 있는 것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억울함을 당할 때에 분을 못참아서 싸우거나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말고 세상 마칠 때까지 외롭지만 겸손히 인내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기다립시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천지를 휘두르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농부가 가시나무 뿌리채 뽑고 쥘레넝쿨 뿌리채 뽑아버려 주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 그들이 오히려 불쌍해집니다. 땅 위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김일성, 김정일의 악독한 행동이 끝나지 않아도 그들이 지옥가서 고생 당할 생각을 하니 불쌍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역사를 놓고서 마음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원한 심판의 경륜을 생각했을 때에 좀스럽게 떠저 말고 오늘의 할 책임만 다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선교주일을 맞이하며 살펴본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현황

인도네시아 / 서만수 선교사



- 파송일 / 1971.9.9
- 가족 / 정소라 사모
- 사역
 - ① 자카르타 한인교회 목회
 - ② 문서를 통한 원주민 교회 선교와 서부 뉴기니아 지역 선교
 - ③ 교회개혁 계속(현 81교회)

- 기도제목
 - ① 현지 개척교회 150개 교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 ② STN신학교가 임대 사용에서 독립적인 학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 ③ 오지지역에 있어서 교회부흥과 각교회 처소마다 적절한 필요가 채워지도록
 - ④ 서만수 선교사님 건강을 위하여

- 주소 / P.O.Box 2355 JKT 10001 Indonesia
- 전화 / 62-21-794-4713, 548-1313(Fax)
- 기도결연 / 영아부 · 새가정부 · 장년3부

독일 / 육호기 선교사



- 파송일 / 1976.12.20
- 가족 / 방선이 사모, 혜진, 중승, 혜인
- 사역
 - ① 프랑크푸르트 장로교회와 비스바덴교회 목회
 - ② 구 소련 및 동구권 선교와 성경반입을 통해 복음전파(특히 불가리아와 터키인 사역·설교)
- 기도제목
 - ① 반입되어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일어나도록
 - ② 프랑크푸르트교회와 비스바덴교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③ 가족건강을 위하여

- 주소 / Leuchte 96 60388 Frankfurt Germany
- 전화 / 49-6109-36850, 36695(Fax)
- 기도결연 / 초등1부 · 고등부

이집트 / 이준교 선교사



- 파송일 / 1979.10.30
- 가족 / 김수련 사모, 석신, 석현
- 사역
 - ① 카이로 한인교회 목회
 - ②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교회성장학 강의
 - ③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교회 개척
 - ④ 현지인 교회와 농촌교회를 순회하면서 수련회와 세미나 인도
 - ⑤ 수단인 난민들을 상대로 의료선교 사역
- 기도제목
 - ① 애굽 복음주의신학교 사역을 위하여
 - ② 카이로 한국총합선교관 건립을 위하여
 - ③ 자녀교육과 가족건강을 위하여

- 주소 / Maadi P.O.Box 334 Cairo Egypt
- 전화 / 202-350-4620(Fax 겸용)
- 기도결연 / 초등2부 · 고등부

이스라엘 / 김주경 선교사



- 파송일 / 1984.6.27
- 가족 / 양천근 사모, 한희
- 사역
 - ① 현지인 아랍인 선교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협력선교
 - ② 성지연구소 건립을 위해 준비중
 - ③ 성지 순례자들을 안내, 통역하며 복음전도 활동, 성경보급 사역
- 기도제목
 - ① 현지인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 ② 선교기지 구축을 위하여
 - ③ 성지연구소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주소 / P.O.Box 23852 15 Sa'adia Gaon street Mevasseret Zion Israel
- 전화 / 972-2-336-806, 769(Fax)
- 기도결연 / 초등3부 · 청년1부

수리남 / 안석렬 선교사



- 파송일 / 1987.2.22
- 가족 / 이성옥 사모, 소영, 위영, 요한
- 사역
 - ①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통해 제자 양육
 - ② 노방전도를 통해 원주민 전도

- ③ 현지에 취업중인 중국인 및 조선족 사역
- ④ 선교를 희망하는 인도인, 인도네시아인, 중국인들과 협력사역 전개

- 기도제목
 - ① 현정부의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도록
 - ② 현지에 있는 다른 한인교회와 해외협력 선교회와의 호의적 관계유지
 - ③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하여
- 주소 / P.O.Box 8222 Paramaribo Suriname(South. A)
- 전화 / 597-45-2816(Fax 겸용)
- 기도결연 / 초등4부 · 대학부

홍콩 · 중국 / 김은태 선교사



- 파송일 / 1991.6.16
- 가족 / 서인숙 사모, 이삭, 성약
- 사역
 - ① 우각현지인교회의 부흥과 전도훈련을 위하여
 - ② 홍콩에서 전도활동과 제자양육 및 기도운동 전개
- 기도제목
 - ① 홍콩거주, 한국 선교사들의 기도모임이 활성화되도록
 - ② 홍콩이 중국 선교의 기지가 되도록

- 주소 / 15flat, 1st floor, Block F, Telford Garden Kowloon Bay, Hong Kong
- 전화 / 852-2-668-8342, 755-9707(Fax)
- 기도결연 / 초등5부 · 에바다부 · 영어예배부

수단 / 김영대 선교사



- 파송일 / 1994.11.6
- 가족 / 박영애 사모, 은배, 영화
- 사역 및 기도제목
 - ① 성경읽기와 연구,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언제나 준비하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 ② 모슬렘 지역 복음전파에 전초기지가 될 가장 필요한 곳에 센터교회(수단 주요 지방도사를 거점으로)가 은혜롭게 개척될 수 있도록
 - ③ 신학교 강의(전도학)를 통하여 지식전달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잘 교수할 수

있도록

- ④ 비자문제가 잘 해결되고 언어가 학문과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크게 진보하여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 주소 / P.O.Box 12973 Khartoum, Sudan, Africa
- 전화 / 249-11-441024, 249-11-447213(Fax)
- 기도결연 / 중등2부 · 청년1부

일본 /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 파송일 / 1976.4.3
- 가족 / 이윤호 사모
- 사역 및 기도제목
 - ① 의료사역으로 영혼구원에 힘씀
 - ② 우상 타파와 일본 복음화를 위하여
 - ③ 신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 ④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 주소 / 日本 北海道 空知郡 北村字赤川 586-63
北村温泉 Nursing Home 舍宅
- 전화 / 81-126-56-2328
- 기도결연 / 유치부 · 장년3부

뉴질랜드 / 김형선 평신도선교사



- 파송일 / 1993.1.10
- 가족 / 한영자 사모, 최정, 남희, 현주, 우성
- 사역 및 기도제목
 - ① 문서선교를 통해 외향선교 및 교포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 ② 책자를 통한 어린이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 ③ 전도된 새신자들이 말씀 안에서 열매가 있도록

- 주소 / 132 Sunset Roa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 649-444-2682
- 기도결연 / 초등6부 · 장년1부

호주 / 이기성 평신도선교사



- 파송일 / 1993.1.10
- 가족 / 박정아 사모, 은송, 진태, 진영
- 사역 및 기도제목
 - ① 현지 한인교회와 협력사역을 통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② 지속적인 언어진보와 가족건강을 위하여
 - ③ YM선교단체에서 훈련(3개월)과 단기선교(3개월)를 잘 받도록
 - ④ 소수민족 선교를 위해서 좋은 동역자를 주시도록

- 주소 / 8A Beechworth Rd Pymble Sydney N.S.W
Australia 2073
- 전화 / 612-44-4460
- 기도결연 / 중등1부 · 장년2부

일본 /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



- 파송일 / 1993.7.11
- 사역 및 기도제목
 - ① 현지 영광교회와 협력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 ② 선교사님 사업을 통해 복음증거를 잘할 수 있도록
 - ③ 가족이 성령충만하여 전 강하도록

- 주소 / 日本國 大阪府 四條市
大字中野 45番地 3
- 전화 / 81-720-62-0478
- 기도결연 / 소망부 · 사랑부 · 청년1부

케냐 /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 파송일 / 1993.7.11
- 가족 / 고병욱 장로 가족(국내)
- 사역 및 기도제목
 - ① 유치원 ICK(International Christian Kindergarden)을 통하여 기독교 교육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 ② 팀사역과 현지인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 ③ 언어의 진보와 건강을 위하여

- 주소 / P.O.Box 49803 Nairobi Kenya
- 전화 / 254-2-71-1180, 71-1293(Fax)
- 기도결연 / 중등3부 · 청년2부

터키 / 김원호 협력선교사(중외파송)



- 파송일자 / 1987.1.16
- 가족 / 한선화 사모, 에스더, 사라, 테보라
- 사역 및 기도제목
 - ① 제이틴부르스교회의 수요 성경공부와 금요 저녁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 ② 규 제크메제교회의 바란 형제가 말씀으로 변화받도록
 - ③ 아브즈랄, 예디쿨레 부녀자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이웃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 ④ 불가리아 지역이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 주소 / Saadetli Sok Mikado Apt 8/4 Yesilkoy
Istanbul Turkey
- 전화 / 90-212-6631239
- 기도결연 / 유아부 · 대학부



선교사님을 위해 하루 한번 반드시 기도합시다

- ①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 ② 독일 육호기 선교사 ③ 이집트 이준교 선교사 ④ 이스라엘 김주경 선교사
- ⑤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⑥ 홍콩 · 중국 김은택 선교사 ⑦ 수단 김영대 선교사 ⑧ 일본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 ⑨ 뉴질랜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 ⑩ 호주 이기성 평신도선교사 ⑪ 일본 김철영 평신도선교사
- ⑫ 케냐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⑬ 터키 김원호 협력선교사

✧ 선교지에서 보내온 소식들 ✧

가장 값지고 빛나는 감사제목은

김은태

(목사, 홍콩·중국 선교사)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성탄에 보내드린 소식 중에 교회의 처소 마련을 위한 기도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뜻 가운데 아담하지만 좋은 장소에 교회 처소를 마련하였습니다. 96년 1월 7일 첫주일에 새성전에서 첫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국을 바라보며 홍콩에 중국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건물은 새로 든 것이지만 참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간단한 내부 공사와 필요한 물품들을 갖추는데 한화 1,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달새는 월 80만원입니다. 한국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차를 구입하라고 보내왔던 현금이 더 귀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몇명의 교인이 정성껏 헌금하였고 어떤 여성도는 계속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며 궂은 일을 마다않고 기뻐하며 봉사하였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일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한 이곳 대부분의 교회가 나무로 된 장의자 대신 접었다 폈다 하는 의자들을 사용합니다.

홍콩은 건물세가 비싸기 때문에 작은 장소를 유용하게 쓰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예배시간 중에 의자 뒤에 성경찬송을 붙여놓을 수 있는 일종의 의자보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신자 중 한 분이 집에 재봉틀이 있고, 또 아주 능숙한 일꾼으로 한 성도와 함께 천을 사다가 예쁜 의자보를 50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인건비가 무척 비싸서 실내 공사에 상당한 경비가 드는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일꾼을 보내주셔서 적은 예산으로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세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의 넘치는 감사제목을 중에서도 가장 값지고 빛나는 것은 역시 영혼들의 변화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모임 초기부터 참석한 한 자매님이 며칠전 자신의 고백하기 힘든 사적인 인생 여정을 저희 부부에게 다 이야기하며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고, 새롭게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살기로 결심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축호전도를 통해 처음 교회에 나오는 曾太太(曾씨 부인이라는 뜻)는 남편과 자녀들이 믿지 않는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절약하며 생활하는 부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감사헌금 1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참 큰 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동안 주일마다 음료(두유)를 만들어 와서 예배 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성도들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토요일에는 축호전도에도 꼭 참석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금전의 소원은 자기와 같이 혼자 출석하는 성도가 가정의 온 식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과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가득차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기도의 응답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는 6년이나 되지만 방황하며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던 한 형제가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를 돌고 고쳐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엉뚱한 것들로 가득차 있었습니. 그러면서도 자기의 것이 진리인 양 열변을 토하는 그를 보며 할 말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홍콩 전체 인구 중 교인이 4% 정도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교인이 주님의 복음에 대해, 진정한 회개와 주를 따르는 생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형제도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이 겸손해지고,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 출석 교인은 장년이 20명, 어린이가 6명 가량입니다. 주일예배는 11시, 어린이 예배는 9시에 모여며 수요일은 기도회로, 목요일은 성경공부, 토요일은 축호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현재는 월 1회 교회 가까운 노인원을 방문하여 작은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 1회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노인원 책임자가 기쁘게 허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월 둘째 금요일은 한 병원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아래의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① 1월 26일부터 3일간은 홍콩의 많은 교회가 연합하여 갖는 전도집회가 홍콩대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먼저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화되고 생명력있는 주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기도해 깨어 있고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95% 이상의 홍콩인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집안에까지 우상제단을 두고 숭배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② 1월 29일부터 서울 장로회 신학교 학생 10여명과 교수님 한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10일간 단기 선교활동을 실시합니다. 이 일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풍성한 영혼의 수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③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저와 함께 홍콩과 중국사역에 동역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기도하며 준비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제가 지도하던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잘 인도하시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할 후원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속한 시일안에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 9:37-38)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저희 가족의 성령충만과 건강을, 언어의 진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언어가 완전치 못한 가운데 설교와 성경공부, 기도회 인도, 전도와 같은 말씀 사역 속에서 말씀이 잘 전달되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광동어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선교의 동역자되신 교회와 개인과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996년 1월 홍콩에서

김은태, 서인숙 선교사 올림

한인 복음화, 뉴질랜드 복음화, 세계 복음화

김형선

(집사, 뉴질랜드 평신도선교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희망찬 199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평강과 형통의 축복이 원로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남녀 교역자님들과 사랑하는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차고도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곳 선교지 뉴질랜드에서 저희들은 고국에 계시는 충현의 성도님들의 끊임 없으신 사랑과 기도의 후원 속에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지난 11월 첫주일에 뉴질랜드 충현교회가 설립되어 첫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신앙원리에 입각한 대표적인 교회와 모범적인 충현교회를 본보기로 삼아 선교를 통한 뉴질랜드 사회의 한인 복음화, 뉴질랜드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설립비전으로 세우고 열두번째 주일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어린 첫걸음으로 새로이 개척하는 뉴질랜드 충현교회를 위해서 축하의 전문을 보내주신 원로목사님을 비롯한 은 충현의 성도님들 앞에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진리의 생에 깊이 뿌리를 내려 그 잎사귀가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며 진한 복음의 향기를 온누리에 내뿜으며 달고 충실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진상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미려한 저희들의 힘이나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고 거친 이민생활에 덩달아 매달라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활기를 찾게 함은 물론 잠든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길잡이가 되어 보다 진실한 복음 증거와 따뜻한 성도간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나감으로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동안도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치시며 하시는 얼마다 행통하는 복을 받으시길 소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기도제목

1. 임시로 사용하는 현지인 교회를 3월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2. 출생된 일꾼들을 끌고루 많이 보내 주옵소서.
3. 온가족이 성령충만하고 건강하게 합심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원호

(목사, 터키 선교사)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협조해 주시고 계속 깊이있는 선교협력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① 3년전에 세워진 제이틴부르노교회의 부흥과 이 교회를 통해 터키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제2의 안디옥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규제크메제, 에다클레, 팔라타야 3지역)

② 불가리아에는 약 1백만명 가량의

터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 있는 터키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③ 대학가의 젊은이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④ 한센화 선교사가 만나고 있는 터키 여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⑤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⑥ 자를 도와서 함께 일할 전문인 선교사(컴퓨터, 음악에 재능이 있는)가 파

송퍼독목

충현교회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후 위크렛 형제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 준비중이고 일리어스 형제는 제이틴부르노교회에서 계속 사역중에 있고 함자 형제는 교회 개척보다는 기독교 책방에 관심을 갖고 현재 서점 설립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고 슬레이만 형제는 신학교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안을 대신드립니다. 계속 이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주일을 맞이하면서

가라! 아니면 보내라!



송 환 창
(장로, 새가정부 부장)

선교란 무엇인가?

다음은 어느 자리에서 서만수 선교사님과 나는 대화의 한 토막이다.

“한 집사님, 금년 휴가에는 인도네시아를 한번 방문해서 선교현장을 보고 느끼면서 실천경험을 쌓아보세요.” “그런데 목사님, 그곳 원주민은 별거벗고 있다면서요? 어디 여자가 갈 곳이 되나요?”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아서 이상할 뿐이에요. 그들은 옷을 걸치는 것이 오히려 실례이고, 벗은 것이 정장입니다. 내 생각, 우리 방식으로 보아서 선교가 안됩니다.”

그렇다. 선교사님의 말씀에서 선교란 그곳 사람의 사고방식, 생활양식에 좇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된다.

왜 선교하여야 하는가?

물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이 선교 사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오해가 있으니 첫째는 소명에 대한 오해이다. 즉 선교는

목사나 전도사같이 특별히 소명을 받아서 전임으로 목회에 전념하는 사람이나 선교단체가 할 임무이고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선교사의 자격에 대

한 오해이다. 즉 자기는 경험이나 교육이나 재능이 없으니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상의 오해와 함께 또 예수님의 종인으로서의 세 가지 결핍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주님을 본받는 마음과 생활이 없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에 대한 절실감, 절박감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고 적극적인 선교를 하지 않으려 한다.

둘째, 성경의 살아 있는 지식과 기도로 예수님의 종인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셋째, 나태하여 바쁘다는 핑계, 소심하여 전도를 거부당할 염려와 불안감으로 선교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를 세울 수 없고 또 실천이 따르지 않는 점이다.

이상의 오해에서 해방되고 결핍을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져서 주님의 종인으로서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우리 총현교회가 세계선교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지 벌써 25년이 되었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 실려있는 많은 선교사를 이미 파송하였고, 그곳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도 계셨으며, 오늘날 아시아대륙(인도네시아, 홍콩)에서 구라파(독일)로, 남미 대륙(수리남)과 아프리카 대륙(이집트, 이스라엘, 수단)에서 목회자 선교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와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평신도인 전문인 선교사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어느 재벌사업가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였다는데, 우리들 크리스천이야말로 세계의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추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총현교회는 유능한 목회자 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야 하고, 비록 한시적인 단기 선교사라도 훈련된 젊은 총현의 형제자매가 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하신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랑스러운 선교사님들

김 지 원
(초등5부)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현의 만나’ 기도 부분에

써 있는 선교사님 한분 한분의 이름과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서 계시는 나라,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씩 써 있는 그 기도내용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우리나라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 가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선교사님을 위해 많은 기도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리지만 자랑스러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정예배 때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 1:17)

긴급구조 119

임 영 호
(대학부 간사)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 ‘긴급구조 119’라는 것이 있다. 요즘에는 TV앞에 머무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것도 아직 방송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기회가 되는 한 놓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보곤 했다. 그것에 나의 흥미를 끄는 이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과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어 시간을 다투며 최선을 다해 한 생명을 구해낼 때 가슴 뭉클한 카타르시스(카타르시스)를 맞출 수 있으며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인명이 경시되는 풍조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119 구조요원들은 항상 대기하며 구조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위급환자를 구해준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보며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정도의 교훈에 머물기에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상황에 부담을 느낀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고를 당하면 119 구조대가 도움을 주지만,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데는 오늘날의 많은 영혼 구조대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무감각해진 대원들이 구조대장이신 예수님 앞에 가면 직무대만으로 해고(?)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도 아직 생명을 바치며 영혼을 구원하는 헌신된 자들이 있고 이제부터라도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

아가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즉 구조받은 사람들이다. 모든 구조받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구조한 분께 드려야 하고, 구조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어떠한 모습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지금 많은 영혼들의 구조요청이 쇄도해오고 있다. 특히 북위 10~40° 지역대에 살고 있는 예술인과 천주교 그리고 불교의 거짓과 속임의 영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조요청이 많이 쇄도하고 있다. 물론 그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가까이 휴전선 이북의 우리 동포들도 같은 상황이고,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구조요청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출동하여 구해내는 것이다. 부활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119선교를 해주는 사람, 선교를 접수하는 사람, 출동을 지시하는 사람, 구급차 운전자, 응급처치하는 사람, 의사, 간호사 그리고 후원자 등에 모두 동원되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구원에도 선교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선교전략을 짜고 선교사를 파송하

는 사람, 직접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사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 물질로 후원해주는 사람, 기도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일심으로 협력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소명이다. “나는 세방으로 끌려가는 재를 전해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잠 24:11)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물속에 빠져 죽었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지금 끝 던지라”(전송가 258장)

우리에게 영혼을 구조하라고 명령하시고 잠시 떠나신 구조대장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직무에 충실하자. 더욱이, 일찍이 선교에 앞장섰고, 5층짜리 선교관이 따로 있는 교회답게 그 그곳에 걸맞는 문을 보이되 총현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인들이 에 일에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감당하기를 내는 정절 소망한다.

1996년 교회 주요행사 및 일정표

· 당 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주관부서	비 고
1. 제38대 권사선거	3/17	주	당회서기	
2. 제10대 집사선거	3/17	주	당회서기	
3. 제29대 장로선거	3/17			
4. 장로·집사·권사장립식	10/15	화	당회서기	권사/취임식
5. 부흥회				

· 예배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신년예배	1/1	월	당 회	
2. 종려주일	3/31	주		
3. 고난주간	4/1-6		당 회	4/5(금) 전교인금식
4. 부활절예배	4/7	주	찬양위	
5. 어린이주일예배	5/5	주	교육·찬양	
6. 아버지주일예배	5/12	주	교육·찬양	
7. 성령강림주일	5/26	주		
8. 맥주감사절예배	7/7	주	교육·찬양	
9. 종교개혁주일	10/27	주		
10. 추수감사절예배	11/17	주	교육·찬양	
11. 성탄축하예배	12/25	수	교육·찬양	
12. 세례문답 및 교육		목	당 회	세례식 전주의 목요일
13. 세례식				
제1차 세례식	2/2	금	당 회	
제2차 세례식	4/12	금	당 회	
제3차 세례식	6/14	금	당 회	
제4차 세례식	8/2	금	당 회	
제5차 세례식	10/11	금	당 회	
제6차 세례식	11/22	금	당 회	
14. 성찬식				
제1차 성찬식	3/10	주	당 회	
제2차 성찬식	6/16	주	당 회	
제3차 성찬식	9/8	주	당 회	
제4차 성찬식	11/24	주	당 회	

· 찬양위원회

행 사 명	비 고
1. 절기음악 예배	부활절/교회설립/성탄절
2. 찬양합창제	

· 교육위원회

행 사 명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겨울 계절학교	1/22-3/1		
2. 여름 계절학교	7/1-8/31		

· 전도위원회

행 사 명	일시	협력부서	비 고
1. 여름 전도대 파송	7/ - 8/	교구위	
2. 군목후보생 수양회	3/ -	봉사위	

· 선교위원회

행 사 명	일시	협력부서	비 고
1. 선교주일	1/28	교육위	

· 봉사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제1차 헌혈	6/9	주	전도위	
2. 제2차 헌혈	10/6	주	전도위	
3. 절기 구제			전도위	

· 인사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제직 및 교구일꾼 임명	12/8	주	교구위	
2. 위원회 봉사자 임명	12/15	주	각위원회	
3. 근속 및 포상자 시상식	12/22	주	사무국	

· 기획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발간			출판국	교회요람/규정집
2. 교역자 연수회	봄·가을		당 회	
3. 장로(시무·원로)수련회	봄·가을		장로회	

· 교구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경로심방	1/ - 2/			
2. 새신자 심방	1/ - 12/			
3. 교구 야외예배	5/ -			

· 건축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제2교육관 공사				

· 성경연구원

행 사 명	일시	협력부서	비 고
1. 창세기 훈련	1/19-1/26	당 회	
2. 주간성경공부		교육위	
제1학기	3/3-6/16		
제2학기	9/1-12/8		
3. 교사양성부		교육위	
제44기(전반기)	3/3-6/16		
제45기(후반기)	9/1-12/8		
4. 교사연강교육		교육위	
전반기	3/3-6/16		
후반기	9/1-12/8		
5. 피택 장로 교육	4/7-9/29	당 회	
6. 피택 안수집사 교육	4/7-9/29	당 회	
7. 피택 권사 교육	4/7-9/29	당 회	
8. 교사 단기수련회	5/15-5/16	교육위	

· 교회성장연구원

행 사 명	일시	협력부서
1. 제3회 전국목회자 세미나		교육국
제3회 6학기	3/4-5/6	
제4회 1학기	9/2-11/4	
2. 농어촌 교역자 세미나	6/11-6/14	전도위
3. 국제 목회자 세미나(컴)	9/25-10/14	선교위

· 도서, 장학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상반기 장학금 지급	2/25	주	교육국	
2. 하반기 장학금 지급	8/25	주	교육국	

· 출판국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주간총헌/주보	매주	주	기획실	
2. 총헌의 만나	매월	주	교역자실	
3. 계간총헌	계간	주	기획실	
4. 교회요람			기획실	
5. 교회 규정집			기획실	

· 총헌기도원

행 사 명	일시	협력부서
1. 고난주간 금식 부흥회	4/1-4/5	예배위
2. 기도원 설립 17주년 기념	5/27-5/31	찬양위
3. 6.25 구국 성회	6/24-6/28	전도위
4. 교회 설립기념 부흥회	9/2-9/6	선교위
5. 신년 부흥회	97.1/6-1/9	기획위

· 총회 및 회의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정기 당회	매월 첫	수	당회서기	
2. 교역자회	매월 첫	목	기획실	당회 의일
3. 제직회	매3개월	주	당회서기	당회 후 주일
1) 제1차	3/10	주		
2) 제2차	6/9	주		
3) 제3차	9/8	주		
4) 제4차	12/29	주		
3. 공동의회			당회서기	
제1차	1/7	주		'95결산 및 '96 예산
제2차	3/3	주		장로집사권사선거공고
제3차	3/17	주		장로집사권사투표
4. 특별 제직회	12/	주	당 회	
5. 총회	12월중		기획위	
1) 교육위				
2) 찬양위				
3) 전도위				
4) 교구위				
5) 봉사위				
6) 선교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충현실업인 영적 각성을 위한 성회

2월 1 ~ 2일,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실업인전도회(회장 임무천 장로)에서는 먼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자신이 각성하여 우리의 사업장을 복음화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회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회원들의 영적 각성을 위한 성회를 열게 되었다. 성회일자는 2월 1일 오후 8시에 저녁 집회를 시작하여 2월 2일 새벽 5시에 새벽기도회로 끝을 맺는다.

특히 이번 성회의 강사 김동호 목사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수료, 맥코믹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료 후 영락교회 협동목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동안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이번 성회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개최하며 2월 1일 교회 본당 앞뜰에서 버스를 대기시켜 오후 6시부터 출발한다. 회원들은 가급적이면 버스를 이용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식사와 숙소는 실업인전도회에서 준비하였는데 실업인전도회의 회원은 물론이고 전교인들의 많은 참여로 은혜받고 축복받는 성회가 되기를 바란다.

96학년도 1학기 장학생 모집

장학회에서는 1996학년도 1학기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선발대상은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중등, 고등, 대학, 청년부에 재적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신학원생(교회가 인정하는 신학원)으로 교회 소정양식과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소속 부장과 위원장 및 교구 교역자와 교구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① 장학금청원서(소정양식) 1통 ② 이력서(소정양식) 1통 ③ 사진(증명사진) 2매 ④ 서약서(소정양식) 1통 ⑤ 입학허가서 사본 1통 ⑥ 주민등록등본 1통 ⑦ 국제증명서 1통 ⑧ 전(前) 학기 성적증명서 1통 ⑨ 재산세증명서 1통 ⑩ 재학학교의 장학금 미수해 증명서 1통 이다. ※ 중·고생은 ⑦, ⑨, ⑩ 제외

신청기간은 1월 7일(주일) ~ 2월 4일(주일)까지이고 신청장소는 교육국(교육관 103호)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신학원생 및 대학생은 일백만원, 고등학생 십만원, 중학생은 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오는 3월 10일 찬양예배시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목사를 속히 허락하시.
2.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올 한해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며, 영력을 더하여 주소서.
3. 새롭게 임명된 일꾼들이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4.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5.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이 제공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6.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히 겨울 공사가 차질없게 하소서.
7.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각 기관에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의 건강(신장)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8. 교회학교가 겨울 수련회 및 성경학교를 통하여 부흥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영력을 허락하여주셔서 더욱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9. 경로심방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올 한해에도 건강과 능력을 주시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 잘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소서.
10. 학습, 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 우리는 지금 ◆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를 열렸다 녹였다 할 수 있는 공포(?)의 관리과를 찾아서
교회를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각 시설물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용해주시옵시오

따뜻한 곳만 찾아들이 쉬운 요즘과 같은 겨울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배나 각종 집회, 그리고 여타 작은 모임들을 따뜻한 실내에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부서가 있어 찾아가 보았다.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다보면 '관리과'라는 노란 팻말이 가리키는 사무실이 바로 그곳이다.

이 관리실에서는 본당, 교육관, 선교관, 복지관, 사택들의 냉난방은 물론이고, 전기, 수도, 영선 기타 모든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그런 곳답게 한 쪽에는 온갖 크고 작은 파이프들이 매달려 있는가 하면, 각종 계기판과 제어판들도 눈에 들어왔다.

우리교회 냉난방시설은 중앙집중식 이어서, 교육관의 경우 한 층을 4구역으로 구분하여 부분 혹은 전체 냉난방이 가능하고, 본당도 여덟 개의 공조실에서 냉난방을 조정한다. 한편 한국전력에서 22,900V의 고압을 받아 1,000KVA의 변압기를 사용하여 교회 각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처음 설치할 때보다 시설물이 많이 늘어 금년에는 변압기를 교체해야 할 형편이다. 그밖에도 상하수도에 관련된 업무, 의자, 탁자 등 소가구를 제작, 수리하는 일도 맡아 하고 있다.

현재 관리실의 상근직원들은 모두 9명. 이들이 조를 나누어 하루 2교대 근무



보기만 해도 들쭉한 Mr. Korea 아니 Mr. 충현의 헌신한 모습들. 주간충현 기자들의 탐방으로 오랫동안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한 자리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은 앞줄 우측에서부터 이금환, 하상구 집사, 유성남 집사, 이진수 집사, 뒷줄 우측에서부터 김인규 집사, 유창근, 김병수 집사, 차상진, 조용묵

를 하면서 이런 시설들이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항상 대기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각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배나 집회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통해 얻는 은혜 또한 남다르다. 10여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상구 집사나 이진수 집사는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

다.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교회같이 큰 교회에서 안전사고 한 건 일어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작은 수고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피로가 가십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대규모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루 2교대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형편상 최소한 3명의 인원 보충이 시급하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에서 쉽게 돈벌 수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요즘, 인원을 충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실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선한 청지기를 구하고 있다.

관리실 직원들이 교회의 기본 시설들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담당하다보니, 성도들에게 바라는 사항 또한 많다. 이에 대한 관리과장 윤상연 집사의 간곡한 부탁의 말이다.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보니 개중에는 교회 시설물들을 소홀히 다루는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각 시설물들에 관심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집회를 마친 후에는 쓰레기를 한 군데로 모은다거나 소등을 하시고, 수도를 사용하신 후에는 제대로 잠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냉방기가 가동중일 때는 생각만큼 빨리 시원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을 열어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운 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더운 공기를 몰고 한 공간으로 들어오면 실내온도를 낮추는 데 일정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난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시설이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의 시설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새벽기도회를 위해 매일 새벽 3시 30분에 기상하여 교회 곳곳의 시설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관리실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축복이라면서 큰 사고없이 하루하루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